

곡성, 주민 주도 맞춤형 복지 '호응'

소규모 의제 발굴·계획·추진 등 가정 방문 제공...사각지대 해소 민관 연결 징검다리 역할 '특독'

곡성군이 마을의 복지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다. 곡성군은 올해 11개 읍·면에서 20개의 마을 복지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마을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마을복지계획은 주민이 직접 지역 내 소규모 복지 의제를 발굴, 계획, 추진하는 것으로 곡성군에서는 2020년부터 3년간 추진 중이다.

마을복지계획은 주민이 주도하기 때문에 각 읍·면의 실정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다양한 복지문제에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주민이 모든 과정을 직접 주도함으로써 주민 자치 역량을 높이고 공동체 역량을 고취시켜 복지서비스를 받는 수혜자의 복지 체감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곡성군에 따르면 20개 마을복지계획 중 올해 상반기에는 1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수전 교체, 미용 서비스, 안전바 설치, 생필품 제공 등이 대표적이며, 여기에 현금, 백세미, 밑반찬 등의 지역 사회 기부가 더해지면서 마을 복지가 추진력을 얻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마을 복지서비

스가 가정을 방문해 제공된다는 점이다. 각계각층의 주민 삶을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청년 고독사 문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곡성군은 오는 12월 성과발표회를 개최해 11개 읍·면에서 추진했던 마을 복지 사업 추진 과정과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을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면서 겪었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한 방안 등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곡성군 관계자는 "마을복지계획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민관을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마을 복지계획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곡성=한정길 기자



고흥군이 실시하는 '귀농·귀촌 영농정착기술교육'에서 아열대 과일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 영농정착 기술교육 운영

고흥군 농업기술센터가 최근 귀농인과 귀농 예정자, 청년 농업인 48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영농정착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돕기 위한 이번 교육은 매주 2~3회씩 총 16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면 최대 62시간의 교육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주요 교육내용은 귀농 전 작물 선택요령과 고추, 마늘, 유자, 아열대 과수 등 작물 재배방법 및 법률 상식, 귀농 정책, 귀농 사례 특강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고흥=진종연 기자

구례, 농식품 수출전략 설명회 중국 바이어 산수유 제품 상담

구례군이 최근 지역 농특산물인 산수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바이어를 초청해 '농식품 수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수유 홍보관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지역 산수유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중국의 농식품 시장 동향, 수출 준비 절차 등을 공유하며, 구례지역 농식품의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지리산특용작물재배팀, 산수유 영농조합법인, 선명농원, 지산식품, 산수유꽃담길평촌영농조합법인 등 5개 산수유 가공업체가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바이어와 1대1 상담을 통해 제품을 직접 소개하는 자리에서는 산수유즙, 산수유청, 산수유환이 바이어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JHE GLOBAL 이문걸 대표가 산수유의 중국 수출전략 등을 설명하고 직접 나들이 장터를 방문해 제품 상담과 시음을 통해 업체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가공업체 대표는 "이번 설명회가 중국 시장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바이어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맞는 상품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앞으로도 식품업체들의 실질적인 수출 준비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수출 전략 설명회를 마련하는 등 농식품 수출 유망업체 육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다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례=손석봉 기자



보성군이 득량면 선소항에서 최근 수산 종자 방류를 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 득량·회천면서 수산 종자 방류

점농어 치어 10만마리

보성군이 최근 득량면 선소항, 회천면 근항항에서 수산 종자 방류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에는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어촌계장과 어업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고부가가치 수산 종자인 점농어 치어 10만 마리를 방류했다.

방류한 점농어 치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질병 검사를 통해 양호한 종자를 선별했다. 점농어는 자연환경 적응력이 높은 어종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어 방류 후에는 인근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

로 종자 방류사업의 효과와 어족자원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방류 수역에서 최소 1개월 이상 어린 물고기 포획 등 불법 어업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감소로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속적인 수산 종자 방류로 풍부한 연안 어장을 조성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군은 올해 여지만 해역에 대해 220만 마리, 감성돔 23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이달 말까지 득량만 해역에 감성돔 23만 마리, 낙지 3,000 마리 등을 추가 방류할 예정이다. /보성=백종두 기자

순천, 농촌 정주여건 개선 팔 걷는다

농축부 공모 선정 427억 투입

순천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돼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등 농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순천시는 이번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정적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내년부 5년간 국비 298억 원을 포함, 총 427억 원을 투자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펼친다.

승주, 주암, 송광, 외서, 낙안, 별량, 상사 등 서부생활권을 중심으로 읍·면 소재지에 생활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배후마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

업 등을 진행한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과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통해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다른 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농촌활성화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순천시는 지난해부터 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 생활권추진위원회, 중간지원조직 등을 구성해 농촌 주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한 농촌공간전략계획과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이번 공모사업에 응모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농촌협약 사업으로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도시와 농촌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박경식 기자

무소속 이복남 의원, 순천시의회 의장 출마

순천시의회 무소속 이복남 의원이 9대 전반기 의장선거에 출마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복남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원도심 일대인 향동·저전동·중앙동·매곡동·삼산동 지역구로 출마해 순천시의원 당선자 중 최다 득표를 얻었으며, 특히 무소속으로 4선에 성공한 유일한 여성시의원이다. 이 의원은 "2023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생태와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준비를 순천시가 잘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존중하는 의정공동체 확립을 위해 무소속인제가 이를 잘 수행할 책임자"고 강조했다. /순천=박경식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곡성미래교육재단, 벼룩시장 수익금 기부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 지난 4월 초등성장박람회 벼룩시장 운영을 통한 수익금 16만8,000원을 푸른곡성 21실천협의회에 기부했다. 벼룩시장에는 초등학생들이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이나 기부하고 싶은 물건을 부스에서 판매했다. 이날 8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보내준 물품 70여 점, 구매 학생 60여 명

이 참여했으며 여기서 모인 수익금 전액을 이번에 기부했다. 박정수 푸른곡성21실천협의회 상임대표는 "아이들이 자원순환을 이해하고 곡성의 자연환경을 유지하는데 참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며 "환경을 살리는 일에 잘 쓰겠다"고 밝혔다. /곡성=한정길 기자



여수 읍촌면 새마을회, 열무김치 나눔

여수시 읍촌면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가 최근 경로당 어르신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 회원들과 면사무소 직원 등 30여 명은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직접 담근 열무김치 51상자를 정성까지 가득 담아 경로당 어르신들께 전달했다.

류귀수 협의회장은 "어르신들이 열무김치를 맛있게 드시며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를 통해 살기 좋은 읍촌면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훈기 읍촌면장은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주)피엠씨텍, 가족 미니운동회 개최

(주)피엠씨텍이 최근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에서 지역내 다양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미니운동회를 광양시가족센터와 함께 개최해 지역사회 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행사는 2022년 글로벌 모범 시민 위크를 맞아 임직원과 자녀들이 1대1로 매칭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로 진행했으며, 지구공 달리기, 줄다리기, 계주 등 10종류의 게임을 진행했다. 피엠씨텍 관계자는 "지역에서 참여한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한 직원 모두 만족도가 높은 봉사활동이 돼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동현 기자